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특성화고 취업률 알고보니… ▶6
표류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8
'청보리 물결' 제주 가파도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87호 1판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음력 4월 7일)

원내대표 경선도 고배…지도부 1명도 진출 못해

민주당 호남정치권 몰락

지역민심 실망감 속 새정치 기대…야권 재편 가속

15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김동철 의원이 고배를 마심에 따라, 호남 정치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단 한명도 진출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민주당의 이미지와 연동되면서 호남에서의 안풍(안철수 바람)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호남 정치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김한길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호남 정치권이 당 대표의 지역적 배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민심은 그동안 안주해왔던 지역 정치권이 결국 민주당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착잡한 반응과 함께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새롭게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설마 했지만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호남 정치권이 몰락할 줄 몰랐다"며 "지난 대선에서 무한 지지를 해줬던 지역민께 들 낯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확산은 호남에서의 '안풍'을 가속시키면서 향후 야권 재편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호남 정치권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의 안철수 의원 지지 포럼 등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의 '호남 정치권 전멸'은 '안풍'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카드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배려 등이 현실화된다면 호남 민심의 동요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6일 '광주 혁신선언'을 통해 과감한 기득권 포기, 강력한 개혁 공천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의 동요는 민주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민주당의 과감한 혁신으로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호남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원내대표 민주 전병헌 새누리 최경환

최경환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에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3선의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청도)이 각각 선출됐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당의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도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인사가 한 명도 없게 돼 호남 정치인의 암흑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5일 오전 국회에서 소속 의원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8표를 득표, 56표를 얻는데 그친 전남의 우윤근 의원을 1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우윤근 의원 50표, 전병헌 의원 47표, 김동철 의원 27표를 각각 얻었으나, 재적 과반(64표) 득표자가 없어 전 의원과 우 의원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다.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선명한 야당', '기백 있는 민주당'을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관계에서 쟁점 현안마다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최 의원이 77표를 얻어 이주영 의원을 제치고 새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옛 친이(친이명박)계인 3선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이 당선됐다.

최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강한 집권여당', 당내·대정부·대야 소통의 '3통(通)'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득표 활동을 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조대부고 총동창회
제20차 회기 정기총회
■ 일시 : 2013. 5. 27(월)
(오후 6:30)
■ 장소 : 라마다호텔 연회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성 호

5·18 민주묘지 참배 행렬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오후 초여름 날씨속에서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학생 등 전국 각지에서 참배 행렬이 줄을 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희생자 비하·北 개입… 度 넘은 5·18 폄하

'일베' 희생자·유가족 '홍어' 비유 경악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보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 (이하 일베)의 5·18 폄하와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일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도 앞다퉈 80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의 발언을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고 있는데다 5·18 민주화운동이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책까지 출판돼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난했던 일베 회원들은 3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과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내걸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일베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중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의 시신과 계엄군에 붙잡혀 포박된 시민들을 '홍어'로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해 누리꾼들과 광주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일베 사이트에서 '홍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다.

또한, '광주 홈쇼핑 장사 잘되네'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5·18 당시 상무관 내에 관이 줄지어 놓여져 있는 사진을 게시해 놓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배달될 홍어 포장 완료'라는 글을 달았다.

관을 옮기는 시민들의 사진에는 '홈쇼핑이 매진이라, 택배기사들이 바쁘당게요'라고 썼고, 전남도청 앞 광장에 숨진 시신들의 사진에는 "애미야 홍어 좀 밖에 널어라"라고 썼다.

누리꾼들은 게시물을 캡쳐해 놓고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정권의 역사 인식과 무관치 않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걸 고발 못하는가?" "막가파식 작태, 정신 이상자들" 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종편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 침투를 주장한 탈북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해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미교포로 알려진 김대령씨는 최근 5·18이 사전 준비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출간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8강-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 글로벌 시장으로 눈 돌리자"

"세계 경제를 구조적인 장기침체라고 설명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8번째 강좌가 14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최현만(52) 미래에셋생명 수석 부회장은 현재 국내 경기지표와 세계의 경제상황을 명료하게 분석하며 저성장 기조 속에 기업과 가계의 투자 향방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관련기사 2면〉

그는 "저금리·저성장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때 가계의 자산 운용 방법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묶여있는 자산을 배분해 국외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강진 출신으로, 1989년 동원증권에 입사한 뒤 1996년 동원증권 서초지점장을 지내고 1997년 미래에셋의 창업멤버가 됐다. 1999년 미래에셋벤처캐피탈 대표·미래에셋증권 대표를 역임하고 2007년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에 선임된 뒤 지난해 미래에셋그룹 및 생명 수석 부회장에 선출됐다.

오는 21일 열리는 9번째 특강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의 멘토',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